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김원중 의원 외 18명

나. 의안번호 : 제2805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6.

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사유

- 「교통문화교육원은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운수종사자 가족 및 지역주민을 위한 부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
- 최근 키포드 및 전기자전거의 잘못된 이용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이 매우 중요함
- 또한 2025년부터 교통문화교육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한 교통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- 교통문화교육원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띄어쓰기, 조의 순서 등 기타 조례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교통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“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운영”을 추가함(안 제5조제4호)
- 나. 시장의 책무를 정비하여 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명시함(안 제3조)
- 다. 교통문화교육원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, 띄어쓰기 및 조의 순서 등 조례를 정비함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5조의2, 제6조 및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)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5. 6. 3. ~ 6. 7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¹⁾

- 원안과 같이 조례를 정비하여 교통문화교육원 기능을 더욱 명확히 하고,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것에 동의함

1) 제331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(택시정책과-20052, 2025.6.4.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에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,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, 띄어쓰기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관악구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(이하 ‘교육원이라 한다’)은 서울시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25조2)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 운수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난 2001년 개원 이래 연 49,000여명에 달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운영³⁾하고 있음

2) 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

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1., 2017. 8. 9., 2019. 11. 26.>

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3) 프로그램: 사우나, 헬스, 탁구, 당구, 에어로빅 요가, 댄스 등 / 시설운영: 카페 및 웨딩홀 등

※ 교통문화교육원 현황

시설현황	운영현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립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(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설립운영) ▶ 운수종사자 교육 및 복지센터 건립 추진 ('97.6.25., 시장방침 제551호) ○ 준공일 : 2000.11.5. (개원일:'01.7.19.) ○ 명칭 :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○ 위치 : 서울시 관악구 남현1길 38-10 ○ 규모 : 대지 1,650.1㎡, 건물 5,222.67㎡ (지상5~지하1층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방법 : 민간위탁(시설형) ○ '25년 예산 : 1,801백만원 ○ 수탁기관 : (사)서울특별시교통회관 ('23.4.1.~ '26.3.31.) ○ 운영인력 : 정규직 12명, 계약직 4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교통문화교육원은 1,3주 일요일과 공휴일 중 설날/추석연휴 기간은 미운영 - 주 5일 근무가 원칙, 토/일/공휴일은 휴일근로

■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 안전교육 운영 관련 (안 제5조제4호)

- 안 제5조제4호는 교육원의 기능에 “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영”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난 '23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학생 대상의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지적⁴⁾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교육원에서는 올해 3월부터 ‘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’ 과정⁵⁾을 신설하여 인근 지역 (동작구, 관악구)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음

4)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중 5분 자유발언

-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확대 촉구(왕정순 의원)

5) 교통안전교육 개요 (서울시 택시정책과 자료)

- 추진방법 : 학교 대상 교육 신청을 받아 방문교육 실시

- 교육대상 : 동작구/관악구 내 초·중·고등학생

- 교육내용 : 자전거·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고사례 소개 및 관련법규 교육

- 교육실적 : (2025. 3~4월) 3개 초등학교 547명 ※ 하반기(7,8,10월) 3개 학교 교육예정

- 참고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교통사고 건수⁶⁾는 평균 33,682건으로 그 추세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때,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보여짐
- 다만, 동 조례는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육과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교육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

■ 이용료 부분 정비 관련(안 제9조제5항 삭제)

-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원 이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10% 감면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9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음
- 다만, 조례 개정 시 동 규정의 효력 기간을 '20년 12월까지 정함에 따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⁷⁾되었는 바, 동 조례 개정을

6) 서울시 교통사고 건수(한국도로교통공단, 시도별 교통사고(광역))

연도	평균	2022년	2023년	2024년
사고건수	33,682건	33,698건	33,881건	33,465건

통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보여짐

■ 도로명 주소 수정, 띄어쓰기 정비 등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5조의2, 제6조 및 제8조)

-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원의 위치가 지번 주소로 규정되어 있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와 조의 순서 등 기타 조례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국어문법 등8)에 맞게 자구수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조례의 이해 및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

7) 「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부칙 <제7112호, 2019.5.2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8) (법제처) 법령입안심사기준 p,738

- 법령명을 법령의 본칙에서 인용하는 경우, 문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 법령명 앞뒤에 낫표(「」)를 사용한다.

(법제처) 알기쉬운 법령 p,101

- 의존명사 ‘V시’: ‘시’는 명사나 어미 ‘~을’ 뒤에 쓰여 ‘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’라는 뜻의 의존명사이다. 따라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.